



2016/Vol. 24

하늘꿈

칼럼 | 아름다운 말, 향기나는 말
보흐니체 병원 사역
첫 예배 드린 지 16주년을 맞이하며
미션넷, 카이로스 선교훈련을 다녀와서
예로님 프라즈스키 순교 600주년
꼬빌리시 일본어공동체 중창단 "그레이스 싱어즈"



아름다운 말, 향기 나는 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言)의 중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도 말에 관한 것이 꽤 많습니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고,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성경의 잠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미가 담긴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말씀합니다. 한편, 잠언 10장 19절에서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말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말을 적절하고 유익하게 사용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내가 한 말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혀본 적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 무분별하게 한 말 때문에 마음 상해본 적 없는 사람도 아마 거의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무분별한 언어생활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은 불이 수많은 나무를 태워버리듯, 우리 몸의 작은 지체인 혀가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히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얼마나 비참하게 불사를 수 있는지 우리는 살면서 자주 목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혀는 잘만 사용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행복하게 하는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압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부름 받았습시다. 우리의 말 역시 이처럼 육신이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향취를 풍기는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을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은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둬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관계는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본 어떤 이의 모습이 그의 전부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말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그로 하여금 한 사람에게 대해 부정확한 선입견을 품게 하는 상황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은 누군가에게 대한 험담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거둬 말하며 확산시키는 행동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잠14:13). “무릇 더러운 말

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엡4:29-32).

여기에 더하여, 해야 할 말은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당하거나 억압적인 현실에 개입하여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하며 힘 없고 억울한 이들을 변호하는 것은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입니다. 잠언 31장 8-9절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며 꼭 해야 할 말입니다. 우리가 전하려는 복음이 소중할수록 그것을 대충 전해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진실하게 전하기 위한 최선의 준비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힘쓰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마음을 헤아려 인격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누군가와 나누고 있는 말들은 아름답고 향기 나는 말들입니까? 우리의 언어생활 속에 이웃사랑의 마음이 잘 담기고 있습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골4:6). 우리들이 주고받는 모든 말들에서 예수의 빛깔, 예수의 향기, 예수의 맛이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프라하의 봄 내음처럼, 기분 좋고 건강한 향취가 나는 우리의 말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류광현



표지사진 설명:

아트워크숍에서 다민족 어린이들이
함께 만든 '선한 사마리아인' 만화

하늘꿈을 꾸는 교회 이야기 (2015년 12월 ~ 2016년 4월)

2016년이 시작되고도 벌써 1/4이 지나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고빌리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함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보흐니체 콘서트(12월 20일 주일)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고 작은 콘서트들이 교회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열립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나 교우들도 보흐니체 병원의 콘서트나 디아코니아 콘서트 등 여러 콘서트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지난 성탄절에는 보흐니체 마을에서 열린 마을의 음악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체코어와 한국어, 영어로 된 캐롤을 준비하였고, 어른들은 '한 촛불(one candle)'이라는 아름다운 찬양곡을 준비했습니다. 일본 공동체에서는 리코더, 호른 연주 등의 악기 연주를 준비해서 함께 공연을 했습니다.

야외에서 진행된 콘서트이다 보니 이전과는 다른 설렘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광장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어서 누구나 관객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새로운 경험이었던 때문이지요. 특별히 지나가는 사람들도 우리의 노래를 들으며 발길을 멈출 수 있고, 또 우리가 전하고 싶은 만큼 맘껏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외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우리 순서 바로 앞에 체코의 어린이들이 체코 민속춤을 너무나 근사하게 추는 공연을 보여 주었기에 조금은 주눅이 들기도 했고, 걱정스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연이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자연스럽게 웃으며 체코어 캐롤을 불렀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이 체코의 어느 마을에서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쁜 소식을 외칠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성 중창으로 '한 촛불'이 연주되었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오심은 인종과 문화와 언어를 넘어서 온 세상에 마땅히 전파되어야 할 기쁜 소식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콘서트를 마친 뒤, 축제의 마당에서 먹고 마신 따뜻한 지역의 음식들 또한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체코 마을 구석구석 그리스도의 향기가, 복음이 스며들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2. 첫예배 드린 지 16주년 기념예배 (1월 10일 주일)



꼬빌리시 교회의 한국어 예배가 시작된 지 올해로 열여섯 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 둘째 주에는 그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6년 전에 체코 교회와 함께 호흡하는 선교적인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소개된 지난 시간들의 사진을 보며 우리 교회가 어떤 생각, 어떤 고민을 해 왔는지 모두들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의 꼬맹이들은 벌써 자라서 소년, 소녀가 되었고 - 첫 예배 때 유아세례를 받은 다빈이는 이제 중고등부의 만연니랍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의 변화는 있었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섬기는 모습은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음을 느낍니다. 아니 사실은 점점 더 섬김에 성숙이 더해져 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16주년 생일 케이크 앞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유,초등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꼬빌리시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얼마나 자라 이 교회와 이 사회의 든든한 일꾼들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성장하며 성숙해져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그 꿈에 조금 더 다가가 있지 않을까 기도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열 여섯 해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드립니다.

3. 부활절 전 아트워크숍 (3월 19일 토요일)



올해도 변함없이 부활절 아트워크숍을 통해 꼬빌리시의 어린이들은 또 멋진 협동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협동 벽화, 협동 스테인드글라스에 이어 이번에는 협동해서 만드는 만화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4개의 장면을 설정하여 4컷의 만화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컷마다 여러 아이들이 만드는 만화가 가능할까하는 의문점이 들었지만,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달리 자유로운 생각과 표현 방법을 동원해 성경의 인물들을 창조해 냈습니다. 캐릭터 뿐만 아니라 배경과 소품들까지도요. 폴린스키 장로님과 슈토르코바 사모님, 그리고 폴라쇼바 사모님의 지도에 따라 아이들은 정말 즐겁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프라하 8지역의 콘테스트에 출품하여 전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우리가 만든 작품이 이미 선정되어 곧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아트워크숍을 통해 좋은 이웃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부활절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보흐니체 병원 사역 (Our ministry in Bohnice)

1989년 이전에 체코 교회는 병원에서의 봉사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벨벳혁명 이후 상황이 변화되었고, 목사들은 병원 뿐만 아니라 군대나 감옥 같은 기관에서도 목회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꼬빌리시 교회는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보흐니체 정신병원과 협력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지 슈토렉 목사는 보흐니체 병원의 성 바츨라프 교회에서 정기적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당은 이전 공산정권 아래에서 물류창고로 사용되고 있던 곳이었는데, 그러럼 점차 예배를 위한 장소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병원의 여러 병동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꼬빌리시의 목회자들은 이처럼 병원의 각 병동들을 방문하고 정기적으로 모여 협의하는 '보흐니체 연합 영적 돌봄 팀'에서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정기적으로 다섯 개의 병동을 방문하고 때때로 다른 병동 하나도 방문합니다. 환자들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습니다. 알코올이나 약물,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성적인 행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정신과 신체의 조화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등 다양합니다. 우리가 교인들에게만 가지 않고 믿지 않는 환자들에게도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그곳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정신적인 병은 그들에게 삶의 의미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가치 체계를 재정립해야 하며 인생에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허물과 그것이 불러올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 다루어야 합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으려고 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 성경을 읽고, 때때로 함께 기도도 합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병원 구역 내에 있는 바츨라프 교회에서 개신교식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환자와 의사들, 병원 직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열려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배가 마쳐진 후 참석자들은 목회자와 대화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정기적으로 우리 꼬빌리시의 목회자들은 만성적인 질병으로 입원 중인 환자들, 말하자면 보흐니체 병원이 그들의 새로운 거처가 된 사람들이 있는 병동들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너무도 자주 혼자이고, 그들을 방문하여 성탄선물을 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는 우리 교회 다민족 음식바자회를 통해 모인 돈으로 구입한 선물들을 준비합니다. 환우들이 각자 받고 싶은 성탄 선물 목록을 알려주면, 우리는 그 소원들을 가급적 충족시켜주려 노력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운동기구와 같이 그들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큰 선물을 구입해 제공하기도 합니다.

보흐니체 정신병원에서의 이 꼬빌리시 목회자들의 봉사는 아프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우리 선교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첫 예배 드린 지 16주년 기념예배(2016.01.10)

- 집사 및 봉사자 임명식 권면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31-33절)



2016년 집사 직분 및 봉사자직분에 임명을 받으신 분들에게 권면과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 크게 성장하는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뜻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의 동기(motivation)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자신을 감추고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나는 언제나 오류가 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완전히 옳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자가 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전제입니다. 목사인 저도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모든 일에 인간적 의도가 앞설 수 있고, 자신의 경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오류투성이와 인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즉 선교적인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꼬빌리시 교회는 한국 크리스천들이 해외 특히 이 체코에 나왔을 때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하고 그 대안을 찾아가는 실천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도들이 모여 시작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히브리 할례의 종교에서 시작하였지만 이방 사회로 넘어가면서 이신칭의 -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의 종교로 변화되는 교회였습니다. 바른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려는 그 뜻을 잘 깨달아 자신의 문화와 전통과 익숙함을 벗어버리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조직된 교회는 한 분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을 믿지만 자신들의 문화와 습관과 전통의 폐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체코 개신교회는 6백 년의 가톨릭 박해와 사회주의 50년의 반기독교 캠페인 속에서 생존하면서 독특한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체코 개신교회의 주일예배는 개척교도들의 종친회 모임처럼 아주 폐쇄적입니다. 체코사회는 체코 개신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체코사회는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회가 아니라 이미 기독교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반기독교로 돌아선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증언은 기독교 교회가 사회의 새로운 희망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 기독교는 개교회주의의 급격한 교회성장으로 독특한 우월의식에서 비롯된 신앙의 폐쇄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해하기 보다 개교회의 집단 의식으로서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체코 개척교도들의 가족의식의 교회 폐쇄성과 한국 개신교도들의 개교회의 집단 의식의 교회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한지붕 안에 여러 민족이 함께하는 꼬빌리시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목적은 체코교인과 한국교인 그 외에 다른 민족교인들이 바른 교회를 찾아가서 기독교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아 반기독교사회가 되어버린 체코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입니다. 마치 같은 기체이지만 특성이 다른 수소와 산소라는 두 개의 요소가 만나면 물이라는 전혀 다른 존재형태로 나타나듯이, 체코+한국 기독교인들의 만남은 교회 존재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과 구원을 가져오는 선교적 교회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록 작은 교회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집사직이란 사명을 맡기신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드린 두 가지 권면을 꼭 잊지 마시고 신앙의 정진과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종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카이로스 훈련을 다녀와서

저희는 지난 2016년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한 주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카이로스 선교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이 훈련코스는 보통 영국과 독일 등 유럽지역에서 열리는데 터키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자리였습니다. 터키 선교사님들은 각 지역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참여하셨고 이란과 이집트에서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일과는 보통 오전 8시 아침식사 후부터 저녁 10시까지 종일 세미나 실에 앉아 강의를 듣고, 영상자료를 보고, 조별 모임을 하는 등 빡빡한 일정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선교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 들었던 이야기나 여러 지역을 다녀온 경험들을 보다 이 훈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낄 정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강한 인상이 남는 다채로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적, 역사적, 전략적, 문화적 네 가지 관점으로 선교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가 되도록 새롭게 배우고 교정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탄불에 얼마 전 테러가 있었던 지역이라 오가는 여정의 안전을 위해 마음 써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온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마다 대선배 선교사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인생의 조언도 해주시고, 타지생활에 고달픔을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해주셔서 자신감도 생기고 위로도 받았습니다. 1과부터 9과를 탐구하며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에게도 임하였음을 믿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그 연대기 속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조차 존재의 가치가 있고 이 삶은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눈 앞에 펼쳐진 바다와 강렬한 태양은 아버지의 마음처럼 뜨겁고 드넓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해(Sun)를 바라보면서 해(海)를 건너기로 했다'면 이제 해(Do it)야 할 때'란 걸 알았습니다. 먼저 프라하로 돌아가면 기도하는 공간으로 우리 집을 개방하고, 개인주의적인 사고와 자존심의 벽을 부수고 낯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친구가 되며 복된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이루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기도의 힘과 능력에 있으며 이는 마치 믿음의 항로에 엔진의 역할과도 같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다짐들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Mission-Net Congress 2015~2016

2015년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2일까지 일주일간 독일 오픈부 리그에서 진행된 '미션넷'에 참가했습니다. '미션넷'은 약 50개 국가로부터 2500여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예배, 워크숍, 박람회 등에 참여하면서 유럽의 젊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연결되고(Connect), 용기를 북돋우고(Encourage),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Learn from another) 과정을 통해 삶의 터닝 포인트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8일 저녁, 메인 홀에서 진행된 Evening Celebration과 함께 본격적으로 미션넷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의 나라를 호명하며 각 나라의 대표가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싱어송라이터 Andy Flanagan이 이끄는 밴드,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크리스천

캠프에 참여해보는 건 처음이어서 두근거리고 콘서트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체코에서 참가한 청년은 총 8명으로 적은 숫자였지만, 이번 이벤트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되어 미션넷이 끝나고 체코에 돌아온 후에 다시 모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미션넷은 매일 각 나라별로 최대 10명씩 그룹을 나누어 말씀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Family Group"시간과, 강의를 통한 "Bible Study", 다양한 주제 속에서 원하는 테마를 선택해 들을 수 있는 "Seminar & Workshop",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공연까지 뽀뽀하고 알찬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기간 동안 회장 곳곳에서 다양한 박람회와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Wycliffe, OM 등 여러 기독교 단체들과 NGO들의 부스가 설치된 "Global Market"에서는 각 단체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Prayer Zone", 자신이 느낀 것이나 표현하고 싶은 것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 할 수 있도록 도구들이 준비되어있는 "Art Zone", 시간여행을 테마로 전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 해볼 수 있게 해주는 체험 프로그램 "Global Village" 등 예배와 세미나 중간 중간에 시간이 남을 때마다 돌아다

니며 참여 할 수 있도록 곳곳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한끼는 밥 위에 통조림 콩을 얹은 간단한 식단으로 재료를 줄여 그만큼을 식량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금식을 하는 등 세미나나 바이블 스터디에서 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 작은 부분 하나에서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벤트가 짜여 있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큰 규모의 미션캠프, 수많은 유럽 사람들과의 만남,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 그리고 바닥에서 침낭 깔고 자기, 찬물로 샤워하기 등등 평소에 쉽게 경험해보지 못할 일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경험한 일주일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많은 유럽의 청년들이 Missional Life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유럽의 청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하는지 함께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었고,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고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우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PTML 2기 정인아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편 110:3]

한국에서 온 편지(2)

첫 번째 편지 From 박정하



안녕하세요! 꼬빌리시 교회 교우 여러분~! 그 동안 잘 지내셨나요? 시간이 참 빠르게도 흘러서 어느새 2016년 하고도 2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꼬빌리시 교회에서 폐제에 참석했던 여러 나라 청년들과 함께 2015년을 맞이했던 2014년의 마지막 밤이 생각나네요.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모두들 좋은 새해를 맞이하셨지요?

저도 희망차게 2016년을 시작하긴 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감당하기 힘든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가지가 인생에서 갑자기 쑥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 저의 진짜 모습이 어찌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요. PTML 훈련을 하며 배웠던 선교적 삶에 대한 용기가 늘 저에게 충만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상황을 의존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아주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많이 부끄럽고, 스스로 속상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런 자신을 빨리 인정하고 극복하려 노력하는 요즘을 보내고 있다는 것 입니다. 용기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제 길을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행동할 수 있었어요. 아마도 체코에서 보낸 1년 동안 그런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던 그 시간에 여러 통로로 함께하시는 주님을 만났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진심으로 평안하고 행복했거든요.

어쨌든 이런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3월을 코앞에 두고 있는 저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아빠가 하시는 서점 일을 도우며 초등학생들에게 피아노도 가르치고 있고요, 주말에는 영유아유치부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귀여운 꼬맹이들과 함께 주일마다 신나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매 주일 귀여운 아이들을 보는 것이 요즘 저의 낙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님에 언제 어디로 저를 부르실지 모른다는 생각에 매주 한 번씩 외국인을 만나서 회화를 배우며 열심히 영어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큰 변화 한가지~ 먹는 것 좋아하고 운동이라고는 숨쉬기와 걷기가 다였던 제가 헬스클럽을 끊어서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 무엇을 하든 체력이 너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요즘 매일 두 시간씩 저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하에서 허리를 삐끗했을 때 이후로 허리 근육이 조금 결리고 아픈 것이 있었는데 허리근력운동을 2주간 했더니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도 프라하 꿈을 꾸기도 하고, 교우 분들 모두 어떻게 지내시는지,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 새

얼마나 자랐는지, 예쁘게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지 궁금하고 보고 싶어요.

언제나 그리운 프라하 꼬빌리시 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 건강히 주님 안에서 평안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게 될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저도 건강히 잘 지내고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두번째 편지 From 문서영

안녕하세요? 지난해 8월, 1년간의 PTML선교훈련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문서영입니다. 지난 글 이후 또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해도 바뀌고 벌써 2월의 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는데, 꼬빌리시 교회 모든 교우 분들도 안녕하신지 궁금합니다.

지난 3개월간 저의 삶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가정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리고 제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제 속의 변화가 제일 컸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나는 무엇이 하고 싶을까?'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했으나 어느 것 하나 '이거다' 싶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저는 아동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기 위해 마음을 정했고, 그 일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하러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파도에 떠밀려온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기사를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가 이 아이를 여기까지 내몰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세계뉴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난민들의 이야기부터,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들 그리고 터키, 파리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를 보고 세계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천국이 이뤄지도록 나의 작은 능력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고, 공부를 더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직도 체구가 많이 그림습니다. 꼬빌리시 교회 교우 분들은 더욱욱 그렇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덕분에 체코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운 것 들은 평생의 재산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기억을 했을 때, 또 다른 배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가끔은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게 많이 아쉽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호에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 뵙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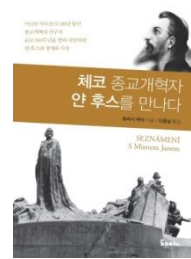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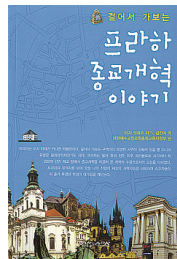
예로님 프라즈스키 순교 6백주년 (2016년 5월 28일)

2015년은 체코종교개혁자 안 후스 순교 6백주년이었다면 금년은 그와 동문수학을 한 친구이자 역시 개혁자인 예로님 프라즈스키 순교 6백주년입니다. 프라하 구시가 광장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카렐 광장 들어가는 모퉁이길 그의 생가 벽면에 있는 그의 초상동판이라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로님 프라즈스키는 1378~80년 사이에 태어나서 1416년 5월 30일 콘스탄츠에서 일년 전에 안 후스가 화형당한 방식으로 똑같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프라하 신도시 출신이며 프라하대학(카렐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안 후스를 만났습니다. 1398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옥스포드로 가서 영국 종교개혁자 존 위클리프의 개혁사상을 접하게 됩니다.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마치고 파리 하이델베르크 쾰른에서 마스터 학위를 취득하고 다시 프라하 카렐 대학에서 마스터 학위를 받게 된 석학중의 석학이었습니다.

안 후스보다 학문은 뛰어나지만 그는 안 후스의 2인자로 그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하며 그의 사상을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국과 다른 도시에서 공부를 마치고 프라하로 돌아올 때 위클리프의 개혁사상을 소개하는 책들을 가지고 와서 프라하 대학에 소개를 합니다. 이때 안 후스도 이 책으로 위클리프의 개혁사상을 접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체코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예로님은 1412년 프라하 민중봉기의 주동자였습니다. 후스와 함께 콘스탄츠 감옥에 갇혀있다가 그 다음해 5월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옆방에 함께 갇혀있는 친구에 대한 염려와 사랑의 마음이 후스의 옥중서한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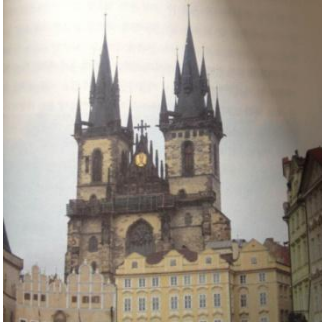
예로님 프라즈스키는 체코 종교개혁 인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로님 프라즈스키 벽화부조가 있는 그의 생가와 인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걸어서 가보는 프라하 종교개혁 이야기>(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체코 종교개혁자 안 후스를 만나다>(동연, 20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실

[걸어서 가보는 프라하 종교개혁 이야기(9)]

뉘 앞의 성모마리아 교회Kostel paní Marie před Týnem와 운겔트



구시가 광장 가운데 서서 광장을 빙 둘러보면 구시청사 반대편에 고딕 양식의 '뉘 앞의 성모마리아 교회' 첨탑이 가장 먼저 눈에 띄일 것이다. 이곳은 초기 고딕양식으로서 프라하의 대표되는 건물로 까렐 4세가 1365년에 세웠다.

'뉘 앞' před Týnem이라는 이름은 근처에 있던 뉘 마당 또는 운겔트와 관련이 있다. 그 유래는 11세기 뉘Týn이라는 영주의 저택 마당에 외국상인들을 위한 숙소와 그들이 가져온 수입품들의 통관절차를 밟는 세관이 있었다. 지금은 그 마당안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보타니쿠스라는 가게가 있지만, 과거에는 외국인 병원과 더불어 로마네스크양식의 성모마리아 채플이 있었다. 이곳은 체코왕 뿐 아니라 프라하 시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수입원이었고 그래서 '돈이 나오는 최고의 장소'였던 뉘 마당은 독일어로 Um Geld라고 불리던 것이, 프라하 사람들에 의해 ungelt라는 발음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까렐4세가 후에 지은 새 고딕 채플도 '뉘 앞'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뉘 교회는 후스파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유명한 개혁교회였다. 당시 후스파의 가장 높은 공식 기관인 '개혁파종교의회'dolní konzistoř가 이곳에 있었고, 카톨릭의 가장 높은 공식기관인 '카톨릭종교의회'horní konzistoř는 프라하성 비트성당에 위치해 있었다.

1412년에는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는 후스의 항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던 세 청년(마르틴, 안, 스타츱)이 뉘 교회 입구 모퉁이에서 처형 당했고 베들레헴 채플에 매장되었다. 1360~1369년에 독일 설교가 콘라드 발드하우저가, 그의 사후에는 안 밀리츠가 설교자로 있었다. 존 위클리프의 가르침과 교황의 면죄부 판매 문제에 대해 대학에서 논쟁이 일어났던 시대에는 안 후스와 야꼬우백이 이 교회의 설교자로 일했다.

1427년부터 안 로키차나가 '뉘 앞의 성모마리아 교회'의 행정관리자 및 수석 설교자로 일했으며 1435년에 그를 이종성찬주이자 교회들의 대주교로 체코국가회의가 선출하였다. 1436년 로키차나는 뉘 교회로 부터 바젤에서 열리는 종교회의에 후스파 협상사절로 파송되었다. 거기서 그는 성찬잔 사용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결국 바젤 종교회의는 모든 예배에서 이종성찬을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후스파 왕 쾨데브라디의 이지(1457~1471) 통치시절, 뉘 앞의 성모마리아교회 왼쪽 첨탑 창문

옆에 금 성찬잔이 있었고, 교회지붕 중앙부 등근 천장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한다"라는 글이 왕의 동상 위에 쓰여있었다. 그러나 빌라호라 전투 이후 재 카톨릭화 시기에 후스파의 상징인 성찬잔이 지금의 성모마리아 상으로 교체되었는데, 성모마리아 상 가장자리 후광을 성찬잔을 녹여 만들었다고 한다. 성찬잔이 있던 자리는 지금은 비어있다.

1601년 이곳에서 루돌프2세 황제시대에 유명한 덴마크 천문학자 띠호 브라헤의 장례식이 있었고 그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교회당 중앙제단 앞 오른쪽 기둥 옆에 보존되어있다. 그는 1567년 12월 14일 덴마크에서 태어났고 1601년 10월 24일 프라하에서 죽은 개혁교인이다. 원래 이름은 Tyge ottensen Brache이다. 그는 지구 주위로 해와 달이 돌고 다른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구 중심이론을 주장하였다. 그의 이론은 프톨레마이우스의 지구중심이론(천동설)과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이론(지동설)을 절충한 이론이다.

뚤거리týnská ulice로 돌아 들어가 아름다운 장식이 있는 서쪽 교회당 출입구를 따라 50미터 쯤 걸어 바츨라프 부도베츠(1621년 구시가에서 처형당한 체코시민봉기의 리더. 하늘꿈 2014년 9월 호에 수록됨)의 집을 지나 운겔트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한다. 2/640호 그라노브스끼의 집은 프라하에서 가장 잘 보존된 르네상스 양식의 집으로 유명하다. 운겔트 전면 날개쪽에 북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의 아름다운 '로지아'(한 쪽 벽이 열려있는 복도 모양의 방)를 볼 수 있다. 들어온 문 반대편으로 나가면, 구시가 교회당들 가운데 두번째로 큰 성 야콥 교회가 왼편에 서있다. 여기에는 프란치스코 수도원이 있고 교회 본당 회중석은 재카톨릭화 시기인 1689년에 바로크 양식으로 수리되었다. 이곳은 현재 교회당 가운데 최고의 음향을 자랑하고 있어 연주회장 또는 음악 녹음실로 각광받고 있다.

사람들은 '뚤 앞의 성모마리아 교회'를 줄여서 뚤 성당이라고 부른다. 이름이 너무 길다면 '뚤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그러나 숨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구시가에 우뚝 서 있는 뚤 앞의 성모마리아 교회를 바라본다. 한 때는 개혁교회의 중심기관으로 가장 뛰어난 설교가들이 이곳에서 설교하였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개혁교회 신앙의 전통들이 이곳에서 결정되었고 각 교회들에게 전달되었다. 성경 말씀대로 살기위해 카톨릭의 부패와 싸울 때도 뚤 교회는 언제나 중심에서 그 소임을 다하였다. 뚤 교회 건너편 구시청사 앞에 사람들이 잡혀와 처형을 당하고 추방 당했다. 말없이 역사의 굴곡을 지켜보며 그곳에 서있는 뚤 교회는 마치 사막에 서있는 한 그루 올리브 나무 같은 느낌이 든다.

타는 목마름과 모래바람에도 굶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존재하는 것만으로 황량한 사막에 희망을 주는 나무! 놀랍도록 아름다운 자태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누구나 찾아와 쉬고 싶은 나무!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조용히 가슴에 묻고 풍성한 열매로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올리브 나무! 구시가 뚤 교회의 아름다운 침묵이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온다. 김진아

프라하에 미(美)에 대하여(3)

Tři významné dochované rotundy v Praze

Další soubor významných sakrálních staveb v Praze představují zejména tři malé centrální stavby, zvané rotundy. Pojmenování rotunda vzniklo z latinského slova rotundus, což znamená kruhový, a v architektuře se tímto slovem označují stavby centrálního kruhového půdorysu, typický zejména pro románský sloh. V původním významu slova šlo o jakýkoli centrální prostor ohraničený kruhově. Dnes je však tímto termínem chápán specifický typ malého centrálního kostela budovaného zpravidla v raném středověku. Právě z tohoto období pocházejí tři takové stavby stojící na území dnešní Prahy. Pro zajímavost je dobré uvést, že nejstarší rotunda na českém území je mimo Prahu, a to v Budči a je zasvěcená sv. Petru a Pavlovi.

Na území Prahy se tedy jmenovitě podíváme na tyto stavby:

Rotunda sv. Martina

Tato rotunda je nejstarší mezi dochovanými pražskými rotundami a také nejstarší dochovanou stavbou na území Vyšehradu. Vznikla za vlády krále Vratislava II., tedy v poslední třetině 11. století. Zřejmě sloužila jako farní kostel vyšehradského předhradí. Bouřlivé dějiny Vyšehradu stavba ustála a nezankla. Jedná se o rotundu s centrální lodí s lucernou a apsidou. V 19. století dostala nový vstup – portál, který byl vyzdoben podle ornamentů z tzv. Vyšehradského kodexu z 11. století. I vnitřní vybavení oltáře je z 19. století.

Rotunda sv. Kříže Menšího

Tato rotunda se nachází se na Starém Městě na křižovatce Konviktské ulice s ulicí Karoliny Světlé. Její vznik se datuje do období po roce 1125. Stavba se skládá z okrouhlé lodě a apsidy. Nad lodí se tyčí lucerna se sdruženými románskými okny, která má na svém štítu pozlacený kříž s měsícem a osmicípou hvězdou. Stavba se nacházela na významném místě – na trase mezi Vyšehradem a mostem přes Vltavu, který vedl na hrad. První historická zmínka o kostele se dochovala až ze 14. století. Kostel po jistou dobu patřil dominikánům, za Josefa II. byl skladištěm, následně se jej podařilo zachránit a v současné době patří pražské starokatolické farnosti a je místem pravidelných bohoslužeb.

Rotunda sv. Longina

V ulici na Rybníčku v Novém Městě pražském se nachází rotunda sv. Longina. Byla postavená někdy na počátku 12. století a sloužila jako farní kostelík osady Rybníček. Původně byla zasvěcená sv. Štěpánovi. I v tomto případě se jedná o jednoduchou stavbu s centrální lodí a apsidou. Nad lodí se i zde tyčí lucerna, která je ale pozdější – z období baroka, kdy byl kostel upraven. Za Josefa II. byl kostel zrušen a v 19. století se podařilo zabránit jeho zbourání a dnes slouží k bohoslužebným účelům řeckokatolické církve.

Za zmínku stojí i rotunda sv. Máří Magdaleny, která se nachází na samotném severozápadním okraji Prahy v

Přední Kopanině. Kolem kostela se nachází menší hřbitov. Samotný kostel je složitější, než výše jmenované stavby. Kromě samotné rotundy s apsidou ke stavbě patří románská věž a pravouhlá přístavba, dnes sloužící jako hlavní lož kostela. Kostel vznikl ve 12. století a byl během staletí rozšiřován a přestavován.

Na závěr bych ráda uvedla, že na území Prahy se nacházelo několik dnes již nedochovaných rotund. Za zmínku jistě stojí významná rotunda a to na Pražském hradě. Byla založena knížetem Václavem v roce 930. Byla ním první sakrální stavba v místech dnešní katedrály sv. Víta v nádvoří hradního areálu.Kornélia Kolářová Takácsová

프라하에 보존된 중요한 로툰다 세 채

다음으로 "신성한 프라하의 건물들" 칼럼에서 소개하고 싶은 건축물은 세 채의 작은 핵심 건축물, 로툰다이다. 라틴어로 원형을 의미하는 로툰두스(rotundus)에서 파생된 것으로 건축학에서는 지층 평면도가 원형인 건물들을 뜻한다. 이러한 건물들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전형적인 건축물들이다. 원래는 원형으로 된 모든 핵심 공간들을 다 로툰다라고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이른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특정한 작은 핵심 교회를 뜻한다. 프라하에 있는 이 세 채의 건물 또한 중세시대에 지어진 건물이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로툰다는 프라하에 있지 않고 부데스(Budec) 라는 곳에 있으며 성 삐뜨르(Petr)와 빠벨(Pavel)을 기념하는 로툰다다.

성 마르틴의 로툰다



이 로툰다는 프라하에서 제일 오래된 로툰다 중 하나이며 비셰흐라드 (Vysehrad)지역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왕 브라티슬라브 2세(Vratislav II.)의 통치 때 만들어졌다(11세기 후반). 아마도 비셰흐라드(Vysehrad)의 성앞(predhradí)의 교구 교회로 쓰인 것 같다. 폭풍 같은 비셰흐라드 (Vysehrad)의 역사를 건물은 견뎌내고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 로툰다는 상드리에를 가진 중앙회랑(교회 혹은 성당 건물의 가운데 부분을 말함)과 악시다(교회 제단 뒤쪽에 둥근 지붕이 있는 반원형으로 된 부분)를 가지고 있다.

19세기에는 새 입구가 만들어졌다-여러 가지 장식품(흔히 vysehrad의 11세기 코텍스라고 일컬어지는) 장식품으로 장식된 정문이다. 안에 있는 제단 장식들도 19세기에서 보존된 것들이다.

성 Kriz Mensi의 로툰다



이 로툰다는 구시가(Stare Město)에 있는 콘빅트스까(Konviktska)와 까롤리나 스비에틀라(Karolina Svetla)의 사거리에 있다. 1125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둥근 천장과 약시다로 만들어져 있다. 위에는 상들리에와 통합된 로마네스크 창문이 있다. 창문은 딱지에 금으로 만들어진 십자가와 달과 별이 있다. 건축물은 아주 중요한 곳, 비셰흐라드(Vysehrad)와 성으로 연결되는 블타바(Vltava)강의 다리 사이에 있었다. 교회에 대한 보존된 첫 역사적 기록은 14세기이다. 교회는 도미니크 수도회의 소유물이었고, 요세프 2세(Josef II.)의 시대에는 창고로 쓰였다. 그 후에는 교회를 지킬 수 있었고 오늘날에는 프라하의 오래된 가톨릭 교구 중의 하나이며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장소이다.

성 Longin의 로툰다



프라하 신시가(Nove Město)에 있는 리브니첵(Rybnicek) 거리에는 성 론긴(Longin)의 로툰다가 있다. 12세기 초반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작은 마을 리브니첵(Rybnicek)의 교구 교회로 쓰였다. 원래는 성 스테판(Stepan)을 기념하는 로툰다였다. 이 로툰다도 중앙 회랑과 약시다로 만들어진 간단한 건물이다. 회랑 위에는 바로크 시대의 상들리에가 있다(바로크 시대에 이 교회도 재건되었다). 요세프 2세 (Josef II.) 시대 때는 교회가 무효화 되었지만, 19세기 때에 철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오늘날에는 그리스 가톨릭 교회의 예배드리는 목적으로 쓰인다.

꼭 언급해야 하는 로툰다 중 하나는 성 마리 막달레나(Mari Magdalena)의 로툰다다. 이 로툰다는 북서쪽의 프라하 뿌레드니 코판이나(Predni Kopanina)에 있다. 교회 주위에는 작은 묘지가 있다. 교회 자체는 위에 언급된 교회들 보다 좀 복잡하다. 약시대를 가진 독립된 로툰다 이외에도 건물에는 로마네스크 탑과 직각의 증축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은 오늘날 교회의 중앙 네이브로 쓰이고 있다. 교회는 12세기에 지어졌으며 여러 번 넓혀지고 재건되었었다.

마지막으로는 보존되지 않은 프라하의 로툰다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중 하나는 프라하 성에 있었던 중요한 로툰다다. 군주 바츨라프(Václav)으로부터 930년에 설립되었다. 오늘날 성 비투스 대성당 이 있는 프라하 성의 뜰에 들어선 첫 신성한 건물이었다.

넬리 폴라쇼바(실천신학, 교회 예술사 박사) / 번역 예다빈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꼬빌리시 일본어 공동체의 그레이스싱어즈(Grace singers)를 소개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主を 賛美せよ.

2011년 일본 동대지진의 피해지원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꼬빌리시교회 일본어공동체가 주최하면서 활동을 시작한 그레이스싱어즈(Grace singers) 를 오늘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

지난 4년 반 동안 프라하 일본인학교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Noc Kostel, 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축하 콘서트, 보흐니체 병원 콘서트, Slunecnice 양로원 Easter & Advent 콘서트, Diakonia 콘서트 (Kostel Martin ve zdi) 등의 꼬빌리시 교회의 행사에서 연주하고, 체코·일본 우호협회의 신년콘서트 (Lucerna hall, 2013년&2015년), 키미야(木宮)공사 송별 콘서트, 여러 차례의 특별연주(Brevnov Klaster , Kostel Sv. Vavrince na Petrine)를 통해 체코·일본인 사회의 여러 행사에서도 연주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10명의 단원으로, 노래지도 민매라, 반주자 타케무라, 플룻 무카이, 소프라노 파트에 스가야, 야마자키, 시라이시, 사이트, 앨토 파트에 오가사하라, 무네타, 남초바 리카로 대부분 주재원 가족으로 온 주부들과 교환 유학생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체코 개신교 신자 수와 비슷한 비율인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에서 교회를 한 번도 접할 기회가 없었던 멤버들이 단순한 노래 훈련이 아닌 찬양을 연습하고 연주하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가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Noc Kostel'에서 그레이스싱어즈가 고행원 곡 '하늘의 아리랑'과 이권희 곡 '사명'을 일본어 번역 가사로 찬송할 때에 참석하셨던 한국, 체코교우들과 함께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시기가 되면, 4월에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일본의 상황에 맞추어 함께 활동하며 정들었던 단원의 귀국으로 서운한 마음과, 프라하로 부임하는 새로운 단원 을 맞이하는 설레임이 교차합니다.

새 봄에도 그레이스싱어즈는 작은 불꽃(One candle)을 통하여 사랑과 소망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착한노래, 그리고 그 섬김의 발걸음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촛불, 두 촛불...은 세상에 비치네!♡



2015. 체코·일본우호협회 신년콘서트
니시무라(西村)주체코일본대사와 함께



꼬빌리시교회 일본어공동체 7주년
기념 축하예배에서

민매라(ミン メラ)

그雷斯싱어즈는 주로 코빌리시 교회에서 예배나 Noc Kostel, 성탄 축하 모임 등에 참석하고 있는 중장 그룹입니다. 이 지면을 통하여 교회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雷斯싱어즈는 2011년, 일본인학교의 학부모 어머니들이 모여서, 민매라 선생님의 지도 하에 결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년 반 정도 됩니다만, 일본 가곡은 물론, 기독교 성가곡, 동요, J-Pop, 체코와 한국의 노래, 이태리 가곡에도 도전하여, 이제까지 연주한 곡은 60곡 이상이 되었습니다. 옛 악보들을 다시 보면, 그 때 함께 노래하였던 멤버들의 표정이나 체코의 역사가 깃든 홀에 울러 퍼졌던 노래소리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 장소에서 노래했었는데, 그 중에서 제게 인상 깊게 생각나는 것이 노인 시설에서의 연주했던 일입니다. 모든 분들이 경청해 주셨는데, 그 중의 한 어른께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Dekuj" 하고 몇번이나 말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셨다고 생각되는 그분은, 제 어머니와 닮은 데가 있어서, 멀리서 저와 가족을 항상 생각해 주는 그 모습과 겹쳐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멜로디나 하모니로 언어의 벽을 넘어서 마음이 상통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雷斯싱어즈로 활동하면서 많은 기회를 통해 배우며, 체험하며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음악을 통해서 경험한 만남(!)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일본에 있으면 결코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 우연히 프라하에서 만나서 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는 것... 얼마나 기막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여건이 허락됨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앞으로도 함께 노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雷斯싱어즈의 활동이 계속 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 스가야 사유리(菅谷 さゆり)



오른쪽 첫번째 真紀(오가사하라 마키) 자매,
세번째 さゆり(스가야 사유리)자매

저는 2013년부터 그레이스 싱어즈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항상 멋진 음악을 민매라 선생님에게 배워서 집에서 연습을 합니다. 그럴 때면 자연스럽게 딸아이도 노래를 외워서 같이 노래를 하다 보니 집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체코, 한국, 일본의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도 참석하여, 일본에서는 전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과 교회의 좋은 면들을 알게 되어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손목사님 내외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또한 좋은 음악을 배우고 노래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그레이스 싱어즈의 활동이 오래 이어질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

오가사하라 마키(小笠原 真紀)

※ 真紀자매는 매회 연습할 장소로 자택을 기꺼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

「グレースシンガーズ」

“グレースシンガーズ”は、教会の礼拝やノッツコステル、クリスマス会などに参加さ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合唱グループです。

教会の皆様にはたいへんお世話にな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グレースシンガーズは2011年、日本人学校に子供を通わせる母親たちが集まり、関梅羅さん指導の下、結成されました。それから4年半ほどになりますが、日本の合唱曲はもちろん、礼拝の曲、童謡やJ-POP、チェコや韓国の曲、イタリヤ歌曲にも挑戦し、歌った曲は60曲以上にもなりました。古い楽譜を見返してみると、その時に一緒に歌ったメンバーの表情や、歴史あるホールに響く歌声が今も鮮明に思い出されます。

いろいろな所で歌わせていただきましたが、中でも一番印象に残っているのが、高齢者の施設での演奏会です。皆さん熱心に聴いてくださったのですが、その中のひとりの女性が私の手をぎゅっと握りしめ、「Dekuji」と何度何度も言ってくださったのです。私が想像する以上に厳しい時代を生き抜いてこられただろうその方は、母にどことなく似ていて、私や家族のことをいつも案じている遠く離れたその姿と重なり胸が熱くなりました。メロディーやハーモニーによって言葉の壁は破られ、気持ちが通じ合える瞬間でした。

グレースシンガーズを通して多くのことを体験し、学び、感動しました。そしてたくさんのお会いがありました。特にメンバーとの出会いはかけがえのないものです。日本

にいたら絶対会っていないであろう人たちと偶然ブラハで出会い、同じ歌を口ずさむ・・・なんてすばらしくて素敵なことでしょうか！メンバーの皆さんとの出会いに感謝するとともに、これからももっと一緒に歌っていただけたと願っています。そして素晴らしい音楽や人との出会いが続きますことを祈っています。

小笠原 真紀

私は2013年からこのグレースシンガーズの一員になりました。いつも素敵な音楽を梅羅さんにお教え頂き、家で練習していますと自然と子供が覚えて一緒に唄い、家の中が明るくなりました。教会にお邪魔する事が増え、チェコ韓国日本の信者が一緒に礼拝を受けている場面等を拝見し、自分は素敵な場所でとても良い時間を過ごさせて頂いているのだと実感しております。梅羅さん御夫妻を通して、沢山の方々との出会いがあり、また素敵な音楽を聴く事、歌う事ができとても幸せです。今後もこのグレースシンガーズが末長く続く事を願っております。



박철용, 구은진 교우가족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저(박철용)와 아내(구은진), 딸 둘(연우/07년생, 연서/10년생) 이렇게 총 4명입니다. 6년이 넘는 연애 끝에 2005년 9월에 결혼하여 미국 산호세 2년, 서울 8년, 그리고 체코에서 7개월 째 단란(?) 가정을 꾸리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꼭 17년 전인 1999년 3월 21일에 당시 제 교회 후배(=아내 대학 동기)의 소개팅 주선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네요. 그런데 그 교회 후배와는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저는 현재 Plzen 소재 Doosan Skoda Power (두산중공업 자회사)라는 발전소에 들어가는 증기터빈 만드는 회사에서 재무 담당자로 근무 중에 있으며, 제 아내는 성균관대학교 Global MBA 경력

개발업무를 담당하다 2013년부터는 전업주부로 전향하여 두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7월에 본사로 귀임하신 제 전임자(박덕래 집사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꼬빌리시 교회를 선택하게 되었으며, 개인적으로는 가장 성공적인 인수인계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라하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은 한국에서 하기 어려웠던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과 체코 및 근처 유럽 국가들을 비교적 쉽게 여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주어서 개인적으로 참 고맙습니다.

저희 가족 기도 제목은요? 지금까지는 힘들 때 주님께 의지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갈급형 신앙인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주시는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꼬빌리시 교회로 저희 가족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박철용

감정의 재발견 감정을 육아하라(2)

독서의 효과보다 독서하는 시간에 집중한다

이에 대해 엄마들은 아이를 제멋대로 하도록 놔둬야 하느냐고 항변할 수 있다. 물론 아이가 활동할 때 도와주거나 지지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아이가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는 정도여야지 먼저 다가가거나 아이의 주도성을 침범하는 일은 주의해야 한다. 어떤 활동이든 그에 대한 아이의 흥미와 의욕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와 활동할 때는 '어떤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거나 '이런 효과를 보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의욕보다는 '우리 딸과 함께 책을 읽어서 좋다, 우리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다'는 현재를 즐기는 편안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한다. 그림을 잘 그리건 못 그리건 간에 새롭게 즐길 수 있는 놀이로만 여기고, 맘편히 받아들여라 하는 것.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앞뒤 페이지를 넘겨가며 책을 읽는 등 엄마의 기준에 벗어나는 행동을 해도 "엄마는 재미있어"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띄운 뒤 책을 읽어 주는 등 함께 활동에 참여한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는 아이가 알고자 하는 욕구, 지적 호기심을 먼저 내보일 때 반응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등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어 자존감이 높아지고, 스스로 원해서 배웠기 때문에 성취감 역시 커진다.



엄마 말에 아이가 달라질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아이에게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의 마음가짐을 살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자세다. 많은 엄마들이 어린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치거나 책을 읽어줄 때 종종 '욱'하게 된다. 이는 아이가 자신의 기대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으로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왜 모르지? 왜 이해가 안 될까'라는 조바심이 들게 되는 것. 걱정은 점점 커져 이리다 '다른 친구들에게 뒤처지면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앞으로 공부를 못하면 어쩌지?'라는 저만치 앞선 불안감을 느끼며 아이를 다그치게 된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아이를 바라봐야 조바심이 줄어 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무엇보다 또래와의 비교는 금물이다. 비교를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완벽주의적 양육 태도도 경계해야 한다. 잘하려다 보면 이것저것 지시하게 되고, 아이의 행동을 끊임없이 수정하려 하기 때문이다. 남편과 시댁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내 마음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이든 잘하는 아이, 이른바 '엄친딸, 엄친아'를 만들어 자신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마음가짐은 위험하다. 항상 아이를 중심에 두면서 생각하고 '아이

이 말과 행동에 어떤 느낌을 가질까?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며 아이를 중심에 둔 질문을 자주 던져보자. 마지막으로, 아이가 엄마의 말 한마디에 달라질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많은 엄마들이 아이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지난번에 말했잖아. 왜 말 안 들어?"라고 혼을 내곤 하는데, 한번에 달라지는 아이는 세상에 없다. 조금씩 변화해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나아지겠지 하며 느긋하고 여유있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아이에게 행복한 마음을 심어주는 생활

① 행동으로 보여준다

아이는 엄마가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존경하지 않는다. 엄마가 먼저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아이와 한 약속은 꼭 지키는 등 모범이 될 만한 행동을 한다.

② 타협이 필요할 때도 있다

위험한 상황,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웬만한 것은 아이의 의견을 들어준다. 날씨가 추운데 얇은 원피스를 입고 가겠다고 한다면, 원피스를 입되 밑에 바지를 덧입히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는다.

③ 아이와 함께 결정한다

엄마가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아이의 의견을 묻는 건 좋지 않다. 엄마가 바라는 대답을 하지 않을 때 "네가 몰라서 그래. 이게 맞아"라고 설득하는 것은 진정한 대화가 아니다.

아이를 믿어주기 위해서는 엄마가 해결사가 아닌 아이의 지지자가 돼야 한다. 아이가 서툴러 보여도, 느려 보여도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주는 인내심도 필요하다.



아이들은 엄마의 믿음을 먹고 자란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함께 아이의 학습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필요조건은 바로 아이에 대한 엄마의 굳건한 믿음이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조금씩 변화해나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지금 당장 변화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는 잘될 거야, 나아질 거야'라는 신뢰는 엄마의 조급증과 불안감을 해소해준다. 자연스레 아이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보다 아이를 인정해주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게 되고, 이런 엄마의 마음은 아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고스란히 전달된다.

아이 역시 엄마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고, 엄마를 내 편으로 인식하고 엄마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자연스레 관계가 좋아지는 것. 또한 아이는 스스로를 엄마가 인정하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잘하는 사람, 다음에도 잘할 수 있을 거야'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엄마에게 더 인정받기 위해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용기를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또 긍정적인 변화 속에 엄마는 더욱 아이를 믿게 되고, 이런 감정이 아이에게 다시 전달돼 안정감이 한층 두터워지는 선순환 효과를 보인다. 문제는 엄마들이 아이를 믿으려고 하고, 아이에게도 직접 '너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100% 믿기가 힘들다는 사실이다. '믿어야지' 하면서도 '과연 잘할까? 내 믿음대로 될까?'라고 불안감을 느끼고, 아이를 수시로 체크하는 것. 그러다 보니 아이가 나쁜 행동을 반복하거나 실수를 하면 '내 이럴 줄 알았어'라며 더욱 화를 내고, 잔소리와 감시를 반복한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진정한 신뢰다



아이를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아이의 행동과 관계없이 아이를 믿는다는 것이다. 좋지 않은 행동을 했더라도 '원래 착한 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엄마는 아이의 행동을 지적할 뿐, 아이가 나쁘다고 비난하지 않는다. '네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건 잘못이지만 너는 착한 아이야' 라고 믿음을 보여줄 때 아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성이나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나쁜 행동을 고칠

수 있다.

손석한 원장은 "전적으로 아이를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잘라 말하며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연히 의심하는 마음이 들고, 실제로 아이 역시 엄마의 믿음대로 행동하기 쉽지 않다는 것. 손원장은 엄마가 아이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아이가 행동을 잘할 것이라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아이에게 실망할 이유가 없고, 아이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보여도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앞으로 다시 그러지 않으면 돼'라는 반응이 나오게 된다고. 여러 번 잘못을 반복하더라도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거야"가 아니라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구나, 다시 한 번 더 노력해 보자"라고 격려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궁극적으로 아이가 잘하리라는 믿음을 갖는 엄마의 태도다. 즉, 아이를 믿는 것이 지금 당장 혹은 단시간 내 아이의 모습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결과 혹은 언젠가는 달라지리라는 믿음을 지니는 것이 진정으로 아이를 믿어주는 태도에 가깝다는 것이다.

실제 성적이나 행동 등 아이가 내놓은 결과와 무관하게 엄마가 아이를 늘 믿어주고 인정하

면 아이는 강해진다. 자기 암시 효과 같은 피그말리온 효과(다른 사람의 기대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능력이 오르거나 좋은 결과를 얻는 현상)도 볼 수 있다. 즉 엄마가 아이를 믿는 만큼, 바라는 만큼 아이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 간절히 바라고 최선을 다하되, 이 과정에서 아이를 억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나아지는 것이다.

아이가 변화하지 않더라도 믿어준다

이렇게 아이를 믿어주기 위해서는 엄마가 해결사가 아닌 아이의 지지자가 돼야 한다. 아이가 서툴러 보여도, 느려 보여도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주는 인내심도 필요하다. 물론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서툰 모습이 안쓰러워 도와주거나 좋은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해 한마디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아이는 혼자 해보려고 도전했던 일에 간섭을 받거나 누군가 대신 해주며 자율성에 대한 욕구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엄마의 믿음을 바탕으로 천천히 나가더라도 뭐든 직접 해보고, 스스로 하는 아이는 혼자 배우는 습관을 익히며 그 과정에서 무언가 하고 싶은 의욕과 스스로 해내며 얻은 자신에 대한 유능감을 키우게 된다. 사실 아이들은 갑자기 모든 일을 척척 해내지 못한다. 어릴 때부터 작더라도 다양한 성공 경험을 쌓아야 유능감이 커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아이의 장점과 긍정적인 면을 더 자주 그리고 더 집중해 보도록 노력한다. 아이의 단점이나 부족한 면을 인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덜 중요하게 여기거나 혹은 그에 너무 사로잡혀 확대 해석하고 지레 겁먹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의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180도 바꿔놓기 보다는 일단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천천히 개선시킨다는 여유를 가진다. 여기에 자신이 기울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면, 엄마의 신뢰 아래 조금씩 좋아지고, 변화되는 아이를 만날 수 있다.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심어주는 엄마의 자세

① 아이의 편이 돼준다

아이는 엄마가 자기 편인지, 남의 눈치를 보는지 본능적으로 안다. 자신을 믿고 지켜봐 줄 때 아이 또한 엄마를 믿고 의지한다.

②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습관화한다

아이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고 생각하도록 격려하고,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습관화한다.

③ 경청하고 이해해준다

단순히 아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 해본다. 특히 아이와 이야기하면서 가르침을 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런 교육 효과가 없는 잔소리는 멈춘다.

맘 앤 앙팡, 2015년 5월 15일

출처: <http://media.daum.net/life/living/wedding/newsview?newsId=20150515013110041>

기자/에디터 : 이경선



낮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7)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들 (Příběhy našich sousedů)” 라는 시민단체가 있다. 과거 사회주의 시절에 인권을 침해받은 이야기들을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해주어 인권을 침해한 과거 역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시민운동이다. 다양한 사례들과 문서들을 발굴하여 이야기로 만들어 과거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과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것 같다.

불과 사반세기 전의 역사가 잊혀져 갈만큼 체코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1992년 체코슬로바키아에 잠시 방문하고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뉘어진 체코 프라하에 정착할 무렵만 할때에도, 체코 일반사회의 문화는 전혀 낯설다 못해 충격적이었다. 사회주의 시대는 물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예를 들어 밝은 국방색빛을 띤 표면이 거친 두루마리 화장실 휴지가 부족하여 휴지를 사기 위해 줄을 서야 했다. 심지어 신문지를 잘라 휴지로 사용한 가정도 있었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체코주재 파송 한국인들은 이삿짐에 3~4년 사용할 화장실 휴지를 챙겨서 가져올 때가 있었다. 휴지뿐 만이 아니다. 계란, 소금, 쌀 등 생필품 파동은 1993년 이후 수년간 겪어야 했던 일들이다. 그래서 당시 몇명 안되는 한인사회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파동에 대비해 미리 물품을 싹쓸이 구입하여 챙겨두는 일이 일상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 웃지 못할 시절이 있었다.

이러한 생필품 부족은 물품 판매 전시구조와 판매원의 태도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고객이 왕이 아니라 판매원이 왕이었다. 가게에 들어가면 판매원과 의 대화는 마치 관료적인 공무원과의 대화를 연상시켰다. 구입할 물품을 설명하면 창고나 판매원 뒷쪽으로 정렬된 물품을 판매원이 찾아서 꺼내준다. 구입자가 물품을 비교하며 구입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판매원의 일하는 속도에 구입자들은 보조를 맞추어야 했고, 그래서 긴 줄을 불평없이 서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동네 구멍가게에서 아침식사에 필요한 식품을 다량으로 구입하면 판매를 거부하기도 한다. 다량 구입은 미리 예약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몇 번 이런 일을 겪은 뒤 주인에게 직설적으로 물어보았다. “물건을 많이 빨리 파는 것이 좋지않느냐? 백인 동네에 외국인이 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냐? 아니면 인종차별을 하는거냐?” 그 가게 주인의 대답은 의외였다. “당신이 예고없이 물건을 많이 사가면 오늘 이 동네에서 구입해야 할 다른 사람들이 아침을 먹지 못하지 않겠느냐? 많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날 미리 이야기해라. 그러면 된다.”

생필품 부족으로 인해 관료적으로 변한 사회의 모습도 있지만, 부족한 물품을 동네 사람들이 함께 나누려는 풍습도 있음을 알게되는 기회였다. 낯선 정도가 아니라 충격적이었던 초창기 체코

사회의 경험은 결국 나의 의식의 한계를 의미하였다. 동네 구멍가게 주인으로부터 깨달은 사실이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사회와 독재사회, 극과 극 두 사회체제 사이에서, 사회체제와 상관없이 인간의 본성은 두 얼굴을 가진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평화적 삶과 권력을 누리려는 관료적인 삶이다.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들”이 또 다른 관료적 삶을 유지하기 위한 과거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아름답게 지켰던 “이웃과 더불어 사는 평화적 삶”의 기억을 지우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관료적 힘을 가진 자들이 여론과 교육을 통해 조작하는 의식을 경계하는 길은 길과 진리와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다.

이 종 실



하늘꿈 이야기에 우리의 이웃을 초대합니다.

(2016년 4월 ~ 6월)

꼬빌리시 공동체의 좋은 행사 및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꼬빌리시 다민족 공동체의 날 (5월 1일 주일)



5월의 첫째 주일은 꼬빌리시 다민족이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한걸음 더 다가가는 다민족 공동체의 날입니다. 한국 공동체가 맛있는 바비큐를, 체코 공동체가 케익과 쿠키 등의 디저트를, 일본 공동체가 후르츠 칵테일을 준비해 함께 먹고 마시며 축제를 즐길 예정입니다. 하나의 교회, 하나의 공동체를 바라

보며 서로 알아가기를, 조금 더 다가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이번 행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진정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서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경험하고 싶은 여러분 모두를 꼬빌리시 교회로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봄날에 만나요!

2. 교회의 밤 Noc Kostelu (6월 10일 금요일)



올해도 변함없이 교회의 밤이 열리는 금요일 저녁, 체코의 지역 교회들과 함께 꼬빌리시 교회도 교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고 싶어도 용기가 나지 않았던 분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은 분들, 체코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어떤 분이라도 좋습니다.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린 교회의 문처럼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곳,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곳, 특별히 다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지내는 우리 교회로 두 팔 벌려 초청합니다. 현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역들과 함께 어린이를 위한 이색 프로그램, 각 민족의 특징이 담겨있는 콘서트, 전시회 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문턱이 가장 낮아지는 그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화예술 공연,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1. 전시회 : 타이타닉 전시회



북대서양 횡단 여객선으로 1912년 침몰한 여객선인 타이타닉 호와 관련한 전시회로, 타이 타닉 관련 내용 뿐만 아니라 20세기 초의 기술 및 사회 정치적 상황 또한 엿볼 수 있음

○ 장 소 : PVA EXPO PRAHA, Beranových 667, 199 00 Praha 9-Letňany

- 일 시 : 10.02.2016 -30.06.2016, 09:00-20:00 (매일)
- 티켓가격 : 300(주중)/350(주말) Kc

2.공연 : 스머프가 돌아왔다



2015년 슬로바키아 공연시 다양한 연령대 3만명 이상이 관람한 우리에게 친숙한 애니메이션 '개구장이 스머프'의 뮤지컬 버전

- 장 소 : TIPSPORT ARENA, Za Elektrárnou 419/1, Praha 7, Praha
- 일 시 : 2016. 5. 28 10:00 (So)
- 입장료 : Min.390 CZK (2세 이하는 보호자 동반시 무료)

3. 전시회 : 중국 예술가 아이웨이웨이 전시회



중국 출신의 건축가 겸 예술가 겸 독립 큐레이터. 2008년 하계 올림픽의 주경기장인 베이징 국립 경기장의 예술 컨설턴트이기도 한 아이웨이웨이 작품 전시회

- 장 소 : Trade Fair Palace, Dukelských hrdinů 47, Prague 7
- 일 시 : 2016. 2. 6. - 2016. 8. 31, 10:00 - 18:00 (월요일 휴관)

4.콘서트 : 자넷 잭슨



1976년 잭슨 파이브로 데뷔했으며, 마이클 잭슨의 동생인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자넷 잭슨의 월드투어

- 장 소 : O2 ARENA, Ocelářská 460/2, Praha 9, PRAGUE
- 일 시 : 2016. 4. 20 20:00

5.콘서트 : VIVALDIANNO 2016 – MESTO ZRCADEL



Michal Dvorak 프로듀서와 일본 아티스트들이 함께 만든 바로크 음악에 현대의 사운드와 락 에너지가 한데 어우러진 3D 콘서트

- 장 소 : O2 ARENA, Ocelářská 460/2, Praha 9, PRAGUE
- 일 시 : 2016.6.8 20:00

6. 콘서트 : 스페인 피아니스트 Javier Perianes 콘서트 (Nocturne II)



스페인 피아니스트 Javier Perianes 콘서트로 프라하의 봄 축제 프로그램 중 일부로 밤에 하는 것이 특징

- 장 소 : Rudolfinum (루돌피눔), náměstí Jana Palacha 79/1, 110 00 Praha-Praha 1
- 일 시 : 2016.5.18 21:30

K兄 에게

성경에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기를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돌아보면 세상일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혈기는 그것을 인정하려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면된다”는 군대문화가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일이 없다는 사실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히말리야 산보다 더 높은 산인지 모릅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정상에 오르도록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3월 9일에 열리는 이세돌과 인공지능과의 대결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늘꿈은 이 대결 이후에 출판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먹지도 쉬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바둑판의 경우의 수를 스스로 입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인공지능이 이세돌에게 진다하더라도 언젠가는 인간 그 누구도 인공지능과의 대국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인간의 부족함이 어쩌면 삶의 희망을 존재하게 하는 가능성일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 있기에 나 외에 다른 것을 담을 수 있는 자기 합리화의 공간도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을 서로 알게되면 서로를 의지하려는 공감도 생길 것입니다. 이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의해 인생은 서로 다름이 서로를 충만케 하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공간은 “신의 존재”에 대한 탐구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다른 이름으로 “사랑”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종 실

교회 행사 안내

4.21(목) 노숙인 수프 봉사

5.1(일) 다민족 연합예배 / 다민족 공동체의 날

5.24(화) 네덜란드-헝가리 개신교회 방문단과 함께 드리는 연합예배

6.5(일) 다민족 연합예배 / 연합 어린이

6.10(금) 교회의 밤 Noc Kostelu

7.30-8.6 '살아있는 교회' 여름가족캠프

예배 및 모임 안내

한인공동체 예배 주일 오전 11시 28분

체코공동체 예배 주일 오전 9시 30분

일본공동체 예배 주일 오후 2시

다민족 연합예배 매월 첫째 주 9시 30분

청년부 성경공부 목요일 오후 6시

구역모임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교회학교 어린이, 청소년 성경공부 주일예배 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발행인 : 류광현

함께 만든 이 : 여경화, 백상홍, 이은진, 임영주, 정연실, 예다빈

발행일 : 2016. 4. 17

U školské zahrady 1, Kobylišy Praha 8/ www.praguechurch.net

프라하 꼬빌리시 한인교회

